

천부경 81자 해설

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

일사무시일 석삼극무진본

일(一)에서 시작되었지만 일(一)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천, 지, 인 삼극으로 갈라졌어도 그 근본은 다하지 않는다.

삼역대경(三易大經) 선천지하도낙서(先天地河圖洛書)에 「선천(先天)은 천개 어자(天開於子)의 운(運)으로 '하도(河圖)' - 천(天) 8괘(八卦)' 가 되고, 후천(後天)은 지벽어축(地闢於丑)의 운(運)으로 '낙서(洛書)' - 지(地) 8괘(八卦)' 가 되고, 중천(中天)은 인생어인(人生於人)의 운(運)으로 '영부용담(靈符龍潭)' - 인(人) 8괘(八卦)' 가 되니 선천(先天)의 3남(男) 3녀(女)와 후천(後天)의 3남(男) 3녀(女)와 중천(中天)의 3남(男) 3녀(女)다. 삼천(三天)의 3건(乾), 3곤(坤)으로 각각 자리를 정하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선천(先天)은 천(天) 8괘(八卦) 1로 시작하고 후천(後天)은 지(地) 8괘(八卦) 2로 시작하고 중천은 인(人) 8괘(八卦) 3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一)로 시작되었지만 선천(先天), 후천(後天), 중천(中天)은 1, 2, 3으로 각기 그 시작이 다르다. 그렇지만 그 근본(根本 三)은 다하지 않고 변함이 없다.

天一一地一二人一三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선천(先天)의 시작(天一)은 일(一)로 시작하고 후천(後天)의 시작(地一)은 이(二)로 시작하고 중천(中天)의 시작(人一)은 삼(三)으로 시작한다.

선천(先天)의 1략(一略), 1도(一轍) 복희씨(伏羲氏)와 2도(二轍) 문왕씨(文王氏)는 1로 시작하고 후천(後天)의 2략(二略), 3도(三轍) 수운(水雲)과 4도(四轍) 화운(火雲)은 2로 시작하며 중천(中天)의 3략(三略), 5도(五轍) 목운(木運)과 6도(六轍) 금운(金運)은 3으로 시작한다.

一積十鉅無匱化三

일적십거 무궤화삼

일(一)부터 하나씩 쌓아서 10수까지 커지면 사상(四象)의 궤(匱)인 마귀 옥(상자)에서 벗어나 하늘의 삼수로 회복된다.

하도낙서 육도삼략은 8괘(八卦)가 1부터 10까지 쌓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복희씨(伏羲氏)의 괘(卦)는 1부터 8까지 문왕씨(文王氏)의 괘(卦)는 1부터 9까지 수운(水雲)의 괘(卦)는 2부터 9까지 화운(火雲)의 괘(卦)는 2부터 10까지 목운(木

승리신문

천부경(天符經)

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天一一地一二人一三一積十鉅無匱化三天二三地二三人二三大三合六生七八九運三四成環五七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本心本太陽昴明人中天地一一終無終一

運의 괘(卦)는 3부터 10까지 금운(金運)의 괘(卦)는 3부터 11까지 쌓이지만 1부터 10까지 온전히 쌓인 곳은 하나도 없다.

여덟 개의 괘이기 때문에 당연히 2개의 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귀가 중앙(무극, 에텐동산)에 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씨줄 날줄로 쪼개어 전 우주로 흩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회복하여 다시 주인의 자리인 중앙을 탈환(奪還)하려는 하나님과 이를 저지하려는 마귀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 회복의 과정을 천부경 81자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의 8괘(八卦)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이 선천, 후천, 중천의 9천(九天), 9지(九地), 9변(九變), 9복(九復)의 변화를 거쳐 마지막 금운(金運)에게서 일적십거(一積十鉅)를 이루어 삼위일체를 회복하고 중앙의 주인 자리를 탈환하게 되어 사상(四象)의 궤(匱)인 마귀 옥(상자)에서 벗어나 하늘의 삼수로 회복된다.

이제 화(化)자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격암유록(格菴遺錄) 초장(初章)에 化字化字何化印 無窮造化是海印(화자화자 하화인 무궁조화시해인)이라고 하였다. 화(化)자가 해인(海印)이라고 하였다. 해인(海印)은 감로해인(甘露海印)이라고 하여 정도령의 증표이다.

그러므로 십 수를 완성하면 궁을십승(弓乙十勝) 정도령(正道令)이 해인(海印)의 관능으로 이 세상의 법칙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틀(상자 궤圓)인 마귀(地神)의 옥을 부수고 나오게 된다. 격암유록의

낙반사유십중산(落盤四乳十重山)과 같은 뜻이다.

天二三地二三人二三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지인(1, 2, 3) 3수가 생수 5와 작용하여 선천(先天), 후천(後天), 중천(中天)의 세 번의 변화를 거쳐 15수로 완성된다.

삼역대경(三易大經) 선천지하도낙서(先天地河圖洛書)에 음양양부(陰陽兩符)가 순수(順數)와 역수(逆數)로 성도(成道)하여 선천(先天), 후천(後天), 중천(中天)의 과정을 통하여 세(三)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유불선(儒佛仙)을 크게 합하여 아(亞)자 모양의 발[亞字之田]에 크게 궁을(弓乙)의 덕(德)을 밝힌다고 하였다. 음양의 수이(二)에 천지인(우도, 불도, 선도) 삼(三) 수를 더하면 주인 자리인 중앙에 생수(生數)인 5황극(五皇極)이 자리하게 되고 사방에 1, 2, 3, 4를 차례로 배치하게 된다.

大三合六生七八九

대삼합육생칠팔구

천(天, 一), 지(地, 二), 인(人, 三)의 각각의 수 1, 2, 3을 합하면 6이 되고 음양의 수 2와 천, 지, 인 3수의 합으로 생긴 5수가 중앙에 자리 잡게 되고 다시 중앙에 자리한 생수(生數) 5가 다리가 되어 생수(生數) 1, 2, 3, 4의 자리에 차례로 성수(成數) 6, 7, 8, 9를 다시 배치하게 된다.

삼역대경전서(三易大經全序)에는 이에 대하여 '음양(陰陽)의 도(道)가 정히 이와 같이 변화하여 봄에는 생(生)하고 가을에는 성(成)하니 북방(北方) 1·6은 일생육성(一生六成)하고 동방(東方) 3·8은 삼생팔성(三生八成)하나니 이는 선천양도(先天陽道)의 일이고, 남방(南方) 2·7은 이생칠성(二生七成)하고 서방(西方) 4·9는 사생구성(四生九成)하나니 이는 후천음도(後天陰道)의 일이라고 하였다.

運三四成環五七

운삼사성환오칠

3·8 목운(木運)과 4·9 금운(金運)이 연결고리가 되어 금운에게서 함운하여 하늘(3)의 뜻과 땅(4)의 뜻을 완성하여 7(3+4)수로 중앙에 자리하게 되는데, 이를 수리 연동력으로 보면 선천(先天) 문왕(文王)의 중앙(中央)의 5수가 작용하여 중천(中天)의 금운(金運)에 와서 7수로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3·8 목운(木運)의 생수 3수와 중앙의 7수를 합하면 10수가 되어 중앙에 생수(生數) 5와 성수(成數) 10이 자리하여 황극중천(皇極中天)이 완성된다.

삼역대경전서(三易大經全序)에는 '중앙(中央) 5, 10은 5가 생(生)이 되고 10은 성(成)이 되어 하늘에서 나와 땅에서 끝을 이루나니 천오(天五, 天二三)는 양덕(陽德)이며 태양(太陽)의 빛이요, 지오(地五, 地二三)는 음덕(陰德)이며 달의 정기(精氣)요 인오(人五, 人二三)는 일월성(日月星)이 합한 밝음이라」라고 하였다.

그 천오(天五)인 태양의 빛 5수 구세주가 7수의 완성자로 출현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완성하게 된다. 이를 하략요람(河洛要覽)에서는 금목(38 목운과 49 금운)이 함운(合運)하여 입우중궁(入于中宮)한다고 하였다.

오(五)와 칠(七)을 더하면 십이(十二)수가 되고 십이(十二)는 임금 왕(壬) 자의 파자이므로 금운(金運)이 지상천궁(地上天宮)의 왕(王)이 되어 십이 대문을 활짝 열어 선관선녀(仙官仙女)인 천군(天軍)들이 드나드는 궁궐에 입성하게 된다.

또한 금운(金運)의 괘(八卦)가 3에서 시작하여 11(十一)로 끝이 나는데, 11(十一)은 토(土) 자의 파자이므로 중앙무기오십토궁(中央戊己五十土宮)의 황제장군(黃帝將軍)으로 중궁(中宮)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운(金運)이 바로 토운(土運)이며 정역(正易)이 되므로 천지공사(天地公事)가 금운(金運)에게서 완성(完成)된다.

(하단에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30]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의 석방 운동”

나라는 의식이 죄이므로 죄인은 마귀(魔鬼) 옥(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마귀(魔鬼) 영옥(靈獄)에서 벗어나는 것이 숙원인 것이다. 이긴자가 나와야 비로소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을 석방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완성의 하나님이 마귀를 죽이면 그 마귀가 죽을 때 자신이 인질로 잡고 있는 생명체인 하나님도 같이 죽이므로 완성의 하나님께서 사람 속의 마귀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것이다. 나라 는 의식의 사망 권세를 부수고

마귀 옥에서 하나님이 석방되어 나오려면 강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희생적인 마음을 품어라'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그때 이기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강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사람 속의 하나님의 영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그 사람 속의 마귀를 죽여 주시는 것이다.*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자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잇값을 하라는 말이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덕꾸러기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냥 세월을 따라 흐르다가 나이만 먹고 생각을 여전히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진정한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품행을 갖추어야 한다. 나이는 먹었지만 품행이 그에 걸맞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썩대라고 한다. 하지만 존경심이 일어날 정도의 멋진 어른을 보면 진실으로 경외감이 든다. 나이가 들 어가면서 대접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나이 들수록 신체와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자주 목욕하고, 분기별로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털어 내야 한다. 귀중품이나 패물은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선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받는 이의 고마움도 배가 된다.

둘째, 용모를 단정히 하라.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적당히 갖추어 입어도 괜찮겠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태가 나지 않는 법이다.

셋째, 말하기보다는 들어라. 사람의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듣기를 많이 해야 한다.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멀어진다. 노인의 자랑설과 훈수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말 대신에 박수를 많이 쳐 주는 것이 호감을 받는 비결이다. **넷째**, 대외활

동을 하라.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라. 집에서 침거하며 대외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든다. 동창회나 향우회, 옛 직장 동료 모임 등 익숙한 모임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이색 모임이 더 좋다.

다섯째,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라.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혜롭고 활발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젊으면 서도 경륜이 묻어나는 지혜의 말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여섯째**, 아낌 없이 베풀어라.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을 받는다.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이웃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일곱째, 과감하게 포기하라.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만사와 부부 지식 문제가 어는 날 갑자기 기적처럼 변모할 리가 없지 않은가.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과 여생을 편안하게 한다.

인생에도 춘하추동(春夏秋冬)이 있다. 인생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찾아온다. 봄꽃은 화려하지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한번 성한 것은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쇠한다는 말이다. 물이 잘 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그러므로 나이가 든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격암유록(格菴遺錄) 도부신인(桃符神人)에는 '중흥국(中興國)의 대화문(大和門)은 시자축지술해(始子丑至戌亥)로 십이옥문대개(十二玉門大開)하고 십이제국조공(十二帝國租貢)일세.」라고 쇠하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대화합의 문을 자축(子丑)에서 시작하여 술해(戌亥)에 이르기까지 사시사철 열두 옥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세계 열방이 조공을 바치려고 몰려온다고 기록하고 있다.

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

일묘연만왕만래 용변부동본

본체인 일(一)의 쓰임은 참 묘하다. 만 번 가고 만 번 오는 무수한 변화 속에서도 용도는 변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무극(無極)으로부터 시작된 하늘(天)의 수 1은 천, 지, 인, 만물의 사상(四象)으로 갈라져서 만 가지의 변화를 거치지만 마침내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을 거쳐 중천(中天)의 금운(金運)에 와서 삼신일체(三神一體) 삼진귀일(三眞歸一)로 완성(完成)되니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

本心本太陽

본심본태양

그 근본의 마음은 본래 태양이다.

인간 몸을 입고 오신 금운(金運)의 마음에 본 태

양이신 빛의 하나님이 좌정하니 금운(金運)이 바로 밝고 밝은 만물이 우러러 섬겨야 할 양명인(昴明人) 이시다.



昴明人中天地一一終無終一

양명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중천의 양명인(昴明人)의 몸에서 천지인(天地人)이 다시 하나로 회복된다. 일(一)로 끝이 났지만 일(一)로 끝난 것이 아니다.

만물이 우러러 섬겨야 할 양명인(昴明人)이 바로 금운(金運) 천사요, 황제장군(黃帝將軍)이요, 궁을

십승(弓乙十勝)의 이기신 하나님이다. 금운(金運)에 와서 비로소 삼신일체(三神一體) 삼진귀일(三眞歸一)을 이루어 천지인(天地人), 유불선(儒佛仙)이 크게 하나로 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운(金運)이 바로 기독교의 구세주이며 불교의 생미륵불이요, 불국정토를 이루시는 아미타부처님이다.

금운(金運)이 천부경 81자의 주인공 81궁이요, 11(十一)수의 토운(土運)이며 황제장군(黃帝將軍)이며 12(十二)수의 왕중왕이 되시는 구세주 하나님 이시다. 마귀가 지배하던 사망의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영생의 세상을 열어 하나님의 법으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주인공이다.

만 가지로 갈라졌던 세상을 다시 하나로 회복함으로써 하나(一)로 끝이 났지만 일(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적십거(一積十鉅)하여 10, 11, 12수까지

완성하여 끝이 났으므로 일(一)로 끝난 것이 아니다. 홀로 자유자재하시던 하나님은 6000년 전 마귀에게 패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신을 씨줄 날줄로 쪼개어 전 우주로 산산히 흩어놓았지만, 중천(中天)의 금운(金運)에 와서 삼위일체를 완성하여 6000년 만에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회복(回復)하셨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으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므로 성경 이사야 41장의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는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일사무시일(一始無始一)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의 뜻이다. 이제 이기신 하나님은 왕중왕으로서 새로운 질서로 영원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천국에서 살아갈 하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다. 사람이려면 마땅히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출처: 유튜브 진지아눔]